

질 문 답 변 서

(균형발전추진단)

질문의원	김복동 의원(종로5,6가동)
【질 문】 ○ C&M 중앙케이블TV 방송오보에 대하여 어떤조치를 취하는지 ○ 창신 · 송인지역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이 되어,지구지정이 늦어진 사유	
【답 변】 ○ 종로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구정질의(2006.2.14) 내용과 관련, C&M 중앙케이블TV에서 주민4만여명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구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조사한 바 C&M방송기자가 구정질의시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하면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로구 균형발전추진단-436(2006.02.21)호로 C&M 중앙케이블TV에게 방송시정요구 및 조치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창신1,2,3동 및 송인1동일대(약254,000평)는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이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말부터 서울시와 뉴타운지구로 지정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2005.8.29. 서울시로부터 뉴타운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 후 5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2005.11.30.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으며,	

【답 변】

- 본 지역은 낙산공원에서 송인근린공원과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도심배후에 위치한 곳으로 지형이 불규칙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 부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일부 개별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으나 주변과 단절된 계획으로 난개발 상태이며, 청계천복원사업 완료와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 추진 등으로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와 우리구에 뉴타운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건물임대업자의 수입 감소, 뉴타운 분양 아파트 입주금 부담에 따른 재입주 곤란 등을 이유로 뉴타운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면담(1회)과 구청장 및 부구청장면담(6회) 등을 통하여 이해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
- 일부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재산권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지정후에 주민들이 구성한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분양대상자별 권리 등)이 수립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